

저소득층 노인의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지희 · 조미향¹ · 문덕환²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 ¹원광보건대학교 치기공과 · ²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The influencing factors of denture satisfaction in the low income elderly people

Ji-Hui Lee · Mi-Hyang Cho¹ · Deog-Hwan Moon²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Inje University · ¹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 ²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Inje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Deog-Hwan Mo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Inje University, 75 Boji-ro, Busanjin-gu, Busan, 614-735, Korea; Tel : +82-51-890-6741, E-mail : iimmdh@inje.ac.kr

Received: 22 August 2014; Revised: 12 December 2014; Accepted: 26 January 2015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denture satisfaction in the low income elderly people.

Methods: The subjects were 143 elderly people from 60 to 75 years old wearing dentures and receiving consistent follow-up in the public health center in Busan.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the elderly people from February 1 to March 1, 2013.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denture satisfaction, social variables, and psychological variables. Data were analyzed b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18.0.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cluded gender, age, and chronic diseases. The recognition of oral health included pronunciation, denture maintenance, mastication ability, and education for denture care. The questionnaire was measured by Likert 5 scale.

Results: Gender, chronic disease, denture care instructions, and the self-preception of the oral health after denture treatment were closely correlated with denture satisfaction($p<0.001$). Age and the number of repairs were very important factor to denture satisfaction($p<0.05$). Elderly women were more satisfied with denture than men and those who had no chronic diseases tended to be more satisfied with denture. Those who received oral care instruction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 denture than those who did not. The younger age group and no repairing prosthetic group tended to be more satisfied with the denture.

Conclusions: It is important to provide the denture management services to the low income elderly when they demand the services. The national dental health policy must be focused on connection of the elderly people denture services with the public health center.

Key Words: denture satisfaction, low income elderly, the elderly

색인: 노인, 의치 만족도, 저소득층 노인

서론

▶ 이 논문은 2014년도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Copyright©2015 b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노인의 건강은 노화 정도에 따른 신체기능의 저하 및 기능장애 등의 건강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구강건강은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에 있어서 전신건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Richmond 등¹⁾은 양호하지 않은 구강건강상태

는 전신건강 상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고 Gilber 등²⁾은 저작시 불편함은 식사에 의한 행복감을 박탈함으로써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더욱이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예방진료 및 조기치료를 받을 기회가 적고, 그 결과 치아 우식증 및 치주병이 악화되어 다수의 치아를 발거해서 의치를 장착해야하는 비율이 일반 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9년 6월에 보건복지부는 노인틀니 보험적용 방안을 포함한 [2009~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안]을 발표하고 노인틀니 급여적용방안 개발 연구와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2년 7월부터 노인틀니 중 레진상 전체틀니를, 2013년 7월부터는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급여정책은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만 일부급여대상이므로, 비급여 대상자나 저소득층 노인들의 틀니치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가져온다. 이로 인해 무면허업자에게 불법 의료시술을 받아 2차적인 구강질환까지 야기되는 경우도 있으며, 보험이 적용된 의치의 경우에 정기적 검진을 시행 함에도 불구하고 잇몸퇴축현상에 의한 잇몸통증의 불편감을 느끼며 수리를 해도 잘 맞지 않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치 환자의 경우에 혈거움, 통증, 저작기능과 심미에 대한 불만족 등을 호소함으로써 아예 의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식사나 외출 시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거나, 부적합한 의치장착 환자는 저작이 용이한 종류로만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건강위험성까지 대두되기도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2002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강기능 회복을 위한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구강편익을 위한 노인의치보철사업의 성공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노인의치보철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의치장착 전, 후의 주관적 구강인식정도, 의치종류와 의치관리교육을 통한 의치만족도의 요인을 분석하고 유의한 차이점을 조사하여, 의치장착 노인의 구강위생관리를 향상시키며, 또한 노인의치보철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향후 사업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노인의치사업 대상자

중 2010년~2012년 동안 사업대상자 169명 가운데 26명을 제외하고(사망, 연락두절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대상자 143명을 전원을 대상으로 2013년 2월 1일부터 3월 1일 까지 총 30일 동안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는 기존의 구강 검진 기록부 자료와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면담조사 및 전화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의치장착 전·후 구강건강인식, 기타요인에 따른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만성질환 유무를 조사하였으며, 구강건강인식은 본인이 인지하는 구강건강의 정도를 발음, 의치유지정도여부, 저작능력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기타요인으로는 의치를 장착하는 종류와 의치관리 교육실시 여부를 파악하였다. 전체의치만족도는 의치장착이 끝난 후 의치사용의 전체적인 만족도를 포함하였다.

설문의 구성에 있어서는 설문 문항을 긍정과 부정으로 구성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배열되었으며, 모든 만족도와 인식도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여 ‘매우 그렇다’는 5점, ‘자주 그렇다’를 4점, ‘가끔 그렇다’는 3점, ‘거의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고 부정으로 구성된 문항들에 대해서는 응답점수를 역산 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만성질환)과 기타요인(의치장착 종류 및 의치관리 교육실시 여부)에 따른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ANOVA 분석을 시행하였고 집단 간 차이는 duncan으로 사후검정 하였다.

셋째, 의치 장착 전·후 구강기능 만족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 를 시행하였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의치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사회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62.9%, 남자가 37.1%이었다. 연령은 65~69세가 32.9%이었고, 70~74세가

29.4%, 75~79세가 25.2%, 80세 이상이 12.6% 순이었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질환(고혈압, 당뇨병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3.1%이었고 질환이 없는 사람 46.9%이었다. 의료급여 종별을 구분하였을 때 1종이 89.5%이었고 2종과 차상위 계층은 10.5%이었다.

2. 의치장착 관리에 대한 기타요인 특성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의치장착 관리에 대한 기타요인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의치관리 교육 실시 여부에 따라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64.3%이었고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 35.7% 이었다. 또한 의치장착 내용은 부분의치를 실시한 경우가 60.1%로 나타났고, 전부의치가 27.3%로, 상악 전부의치이면서 하악 부분의치는 11.2%로, 상악은 부분의치이고 하악은 전부의치는 1.4%로 순으로 나타났다. 의치장착 완료 후 수리한 횟수는 한 번도 수리의뢰하지 않은 경우가 64.3%로 가장 많았고, 1~2회 수리한 경우는 19.6%, 3회 이상 수리한 경우가 16.1% 이었다.

3. 의치만족도에 따른 다양한 요인

본 연구에서 의치만족도에 의한 다양한 요인의 조사결과는 <Table 3>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의치만족도 조사결과는 성별,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연령, 의료급여종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에 따른 평균값이 여자 3.66, 남자 3.23의 수치를 보여, 여자가 남자보다 의치만족도가 높았다($p<0.05$).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의치만족도 평균값이 3.76,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3.26으로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 의치만족도가 높았다($p<0.05$). 연령에서는 65~69세가 3.77로 70세 이상 3.36보다 의치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의료급여 종별에서는 2종 및 차상위 계층이 평균값 3.53으로 1종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의치장착 종류에 따른 의치만족도 조사결과는 의치장착 종류에 따라 의치만족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의치장착 종류 중 상악부분의치와 하악전부의치 장착의 경우 평균값이 4.00으로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의치관리교육 실시여부에 따른 의치만족도 조사결과는 의치장착 후 의치사용관리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 평균값이 3.96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67보다 높았다($p<0.001$).

의치수리 횟수에 따른 의치만족도 조사결과는 의치장착 후 의치수리의 횟수에 따라 의치만족도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0.05$), 의치수리 횟수가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43)

Contents		N	%
Sex	Male	53	37.1
	Female	90	62.9
Age	65~69	47	32.9
	70~74	42	29.4
	75~79	36	25.2
	≥80	18	12.6
Chronic diseases	No	67	46.9
	Yes(hypertension, diabetes etc.)	76	53.1
Medicaid level	1st level	128	89.5
	2nd level & potential welfare recipients	15	10.5

Table 2. Characteristics on other factors

(N=143)

Contents		N	%
Denture care instructions	No	51	35.7
	Yes	92	64.3
Denture type	Full denture	39	27.3
	Partial denture	86	60.1
	Upper full denture & lower partial denture	16	11.2
	Upper partial denture & lower full denture	2	1.4
Numbers of repair	No	92	64.3
	1~2	28	19.6
	>3	23	16.1

Table 3. Denture satisfaction by the various characteristics

Contents		N	Mean	SD	p-value*
Denture satisfaction socio-demographic status					
Sex	Male	53	3.23	1.05	0.028
	Female	90	3.66	1.15	
Age	65 ~ 69	47	3.77	0.96	0.046
	≥ 70	96	3.36	1.18	
Chronic disease	No	67	3.76	0.98	0.008
	Yes	76	3.26	1.20	
Medicaid level	1st level	128	3.49	1.12	0.895
	2nd level & potential welfare recipients	15	3.53	1.24	
Denture satisfaction by the denture types					
Total		143	3.70	1.25	0.487
Full denture		39	3.33	0.98	
Partial denture		86	3.50	1.20	
Upper full denture & lower partial denture		16	3.81	1.10	
Upper partial denture & lower full denture		2	4.00	0.00	
Denture satisfaction by denture care instructions					
No		51	2.67	1.07	<0.001
Yes		92	3.96	0.87	
Denture satisfaction by the repair times					
0		92	3.62	1.12	0.155
1 ~ 2		28	3.39	1.06	
>3		23	3.13	1.18	

*by one-way ANOVA

Table 4. The self-perception of the oral health before and after denture treatment

Contents	Before	After
	Mean±SD	Mean±SD
The self-perception of the oral health	2.01±0.67	3.22±0.86
Masticatory force	1.61±0.54	3.22±0.87
Pronunciation	2.02±0.56	3.37±0.81
Esthetic satisfaction	2.71±0.88	3.43±0.67
Denture retention	2.33±0.92	3.10±1.07

Table 5. Factors related to the denture satisfaction

Independent variables	SE	β	t	p-value*
Constant	0.298		5.459	<0.001
Sex(Female)	0.138	0.283	4.791	<0.001
Age(>70)	0.139	-0.168	-2.897	0.004
Experience of chronic disease	0.131	-0.285	-4.916	<0.001
Numbers of repair(>1)	0.138	-0.136	-2.316	0.022
Experience of denture care instructions	0.148	0.363	5.793	<0.001
The self-perception of oral health after denture treatment	0.082	0.387	6.158	<0.001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R²=0.536

4. 의치장착 전·후 주관적 구강건강인식도 변화

본 연구에서 의치장착 전·후 주관적 구강건강인식도

변화 조사결과 <Table 4>와 같다.

의치장착이 구강건강 향상에 도움을 주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치장착 전·후 주관적 구강건강인식도 변화를 조

사하였다. 그 결과, 주관적 구강건강인식도, 저작기능 만족도, 발음 만족도, 심미적 만족도, 고정여부 만족도의 평균값이 의치장착 후가 장착 전보다 높았다($p<0.001$).

5.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결과 <Table 5>와 같다.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과 만성질환유무, 교육실시 유무, 의치장착 후 주관적 구강건강인식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또한 연령, 수리횟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성별, 교육실시 유무, 의치장착 후 주관적 구강건강인식도에서는 양(+)의 영향을 미쳤고, 연령, 수리횟수, 만성질환여부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1$ 에서 28.378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0.556$ 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화 회귀계수(B)를 이용하여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한 결과 의치장착 후 주관적 구강건강인식도와 교육유무의 순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총괄 및 고안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경제적 빈곤과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상실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노인의 노화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노화의 정도에 따른 구강기능저하는 직접적으로 전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강관리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구강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부터 국가 지원차원에서 구강보건사업 내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료급여, 차상위 계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치보철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회 인구학적 특성, 의치 장착 전·후 주관적 구강건강인식도, 의치장착 종류 및 의치관리교육실시여부에 따른 의치만족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 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에 따른 의치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성별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의치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Langer 등³⁾은 여성은 폐경기를 거치면서 의치의 외형에 불만을 나타내고 남성은 저작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으며, 이와 정⁴⁾은 여자에 비해 남자가 총의치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성별에 따른 의치만족도는 연구자마다 서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 유의한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연령증가에 따른 의치 불만족도의 증가는 허 등⁵⁾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치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노인

의 비율이 높게 조사되어, 서로 연관이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연령증가에 따라 치아발거 등으로 인한 구강내 잔존치아의 감소로 인하여 실제 의치의 유지력과 안정성이 떨어져 의치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가 의치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천 등⁶⁾의 연구에서도 만성질환에 대한 치주질환과 상실치수의 결합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협심증, 당뇨, 골다공증에서 모두 관련성이 있었으며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의 의치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강질환 중 치주질환과 상실치는 만성질환의 유병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은 전신건강과 밀접한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치주질환 및 결손치아수가 많으며 전반적인 구강건강상태가 나빠서 의치만족도도 낮았다고 사료된다.

의치장착 전후 주관적 구강건강인식도 변화에서 의치장착을 시행한 후가 주관적 구강건강인식 점수가 높아져 의치장착이 구강건강인식도와 구강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저작기능, 발음, 의치유지정도여부, 심미적 만족도가 의치 장착 전 보다 의치장착 후가 만족도가 모두 높아졌다. 본 연구 결과는 유 등⁷⁾의 연구에서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이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결과와 부합하였다. 최 등⁸⁾은 대전광역시 남구보건소 노인의치보철사업 수혜자 110명 조사결과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구강 건강과 관련된 삶의 만족도 차이 조사에서도 인지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군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 군들에 비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본 연구 결과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Duffy⁹⁾는 노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상태, 음주 및 흡연 등을 제시하였으며, Wilson과 Cleary¹⁰⁾는 구강증상이 구강기능에 영향을 주고 다시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쳐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주관적 구강건강인식과 의치만족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구강건강인식은 의치만족도와 유의하였다. 그러나 대상자 본인이 의치의 고정과 안정 및 심미와 저작에 대한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답변으로서 객관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의문점이다. 따라서 의치의 유지여부에 대한 척도를 계속하거나 저작소요시간과 음식물 분쇄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평가 장치가 마련되어야 보다 체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의치관리교육실시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실시하지 않은 경우보다 의치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안과 지¹¹⁾의 연구에서 구강보건교육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태도는 구강위생 보조용품

의 사용, 스케일링을 받은 경험, 의치의 장착여부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집단이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과 일치하였다. 즉, 구강보건교육의 여부가 바람직한 의치관리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효과적인 의치관리를 위해서는 철저한 구강보건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본 연구의 의치관리교육실시에 따른 의치만족도가 높다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의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 성별, 연령, 만성질환의 유무, 수리횟수, 의치관리교육 실시여부, 자가 인식 구강건강인식도의 의치장착 후 인식도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포항시 60세 이상 치과의원 내원환자들의 가철성 의치사용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장 등¹²⁾의 연구에 의하면 의치만족도는 노인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강¹³⁾의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이 양호할수록 저작만족도, 고정만족도 및 심미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연관성이 있다. 또한 강¹³⁾의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이 양호할수록 의치에 대한 저작, 고정, 심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전반적인 의치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류 등¹⁴⁾은 대학병원 보철과에서 치료받은 가철성 의치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의치사용에 관한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심미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일반적인 만족도, 기능적인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통계적 특성 중에서 진료 만족도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은 의치종류, 소득 및 특진신청여부 등의 순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가철성보철물로 치료받은 25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치만족도 조사한 반 등¹⁵⁾의 연구에서는 심미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의치유지 만족도, 저작기능 만족도, 일반적인 치료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들에게 치료 전후에 의치 사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불필요하고 과장된 기대치를 낮추어 줌으로써 의치 장착 후 사용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주장하였다. 노인들의 의치만족도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본 본 연구 결과와 부분적 일치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문제점으로는 조사대상자가 1개 도시에서 표본을 선정하였기에, 의치를 장착한 노인 전체의 대표성 집단이라고 하기에 일부지역에 국한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제한된 일부지역이라는 문제는 있으나 연령이 65세 이상이며 저소득계층에 국한된 대상자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면접설문 및 전화설문을 실시하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 구강건강 실태조사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노인 의치 보철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노인구강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 및 국가 정책 사업에 반영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실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부정책 차원에서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의치관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구강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노인구강보건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구강상태의 잔존 치아 수 등 다양한 요인들을 배제하고 일부 요인들에 국한하여 연구하였기에 향후 연구에서는 구강상태요인과 환자의 다양한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의치장착 노인의 구강위생관리를 향상시키고자 부산광역시 중구 노인 의치보철사업 수혜자 1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과 만성질환 유무, 교육실시 여부, 시술 후 주관적 구강건강인식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2. 연령, 의치 수리횟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연령에서는 나이가 적을수록 의치만족도가 높았고, 의치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가 수리를 실시한 경우보다 의치만족도가 높았다.
3. 성별에서는 여자가 의치만족도가 높았으며,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와 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의치만족도가 높았고, 의치장착 후 주관적 구강건강인식도가 높을수록 의치만족도가 높았다.

의치의 만족도와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의 올바른 의치관리교육과 구강질환예방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개발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시행으로 구강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노인틀니보철사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보건소내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의치노인의 구강보건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의치유지여부, 의치사용 후 음식물 분쇄정도 등의 척도를 산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1. Richmond S, Chesnutt I, Shennan J, Brown B. The relationship of medical and dental factor to perceived oral and general health.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ogy* 2007; 35: 89-97. <http://dx.doi.org/10.1111/j.1600-0528.2007.00296>.

2. Gilber GH, Foerster U, Duncan RP. Satisfaction with chewing ability in diverse sample of dentate adults. *J Oral Rehabil* 1998; 25(1): 15-27. <http://dx.doi.org/10.1046/j.1365-2842.1998.00207.x>
3. Langer A, Michman J, Seifert I.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with complete dentures in geriatric. *J Prosthet Dent* 1969; 11: 1019-31.
4. Lee SW, Chung MK. Factors influencing patient satisfaction with complete dentures. *J Korean Acad Prosthodont* 2005; 43(5): 633-49.
5. Hur IG, Lee TY, Dong JK, Hong SH. The effects of dental prostheses to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J Korean Acad Prosthodont* 2010; 48: 101-10. <http://dx.doi.org/10.4047/jkap.2010.48.2.101>.
6. Cheon HW, Yu MS, Choi MH. The association of oral diseases and chronic diseases in Korean adult population. *J Korean Soc Dent Hyg* 2012; 12(2): 235-49. <http://dx.doi.org/10.13065/jksdh.2012.12.2.235>.
7. Yu SH, Kim YI, Lee HS.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with removable denture. *J Korean Acad Dent Health* 2008; 32(4): 575-86.
8. Choi SL, Jeong SH, Bae HS, Ryu YA, Choi YH, Song KB. A survey of denture satisfaction and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recipients of the senile prosthetic restoration program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J Korean Acad Dent Health* 2005; 29(4): 474-83.
9. Duffy ME. Determinants of health promotion in midlife women. *Nurs Res* 1998; 37(6): 358-62.
10. Wilson IB, Cleary PD. Linking clinical variables with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 conceptual model of patient outcomes. *J Am Med Assoc* 1995; 273(1): 59-65. <http://dx.doi.org/10.1001/jama.1995.03520250075037>.
11. Ahn KS, Ji MG. A Study of Factors of Oral Health Diseases among the Elderly. *J Korean Acad Dent Hyg Educ* 2008; 8(3): 73-84.
12. Chang IJ, Jeong SH, Park YA, Lee HK, Song KB. Association between denture satisfaction and perceived oral health among the elderly with removable denture. *J Korean Acad Dent Health* 2006; 30(3): 360-9.
13. Kang YJ. A study on subjective oral health awareness and denture satisfaction among elderly people. *J Korean Soc Dent Hyg* 2012; 12(2): 355-63.
14. Ryu DH, Yoon SH, Song KB, Jo KH, Jeong SH. Analysis and survey of satisfaction about removable prosthodontics treatment among dental patients i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J Korean Acad Dent Health* 2000; 24(2): 159-70.
15. Ban YS, Song KB, Jeong SH, Jo KH.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removable dental prosthesis patients in private dental clinics. *J Korean Acad Dent Health* 2001; 25(1): 79-94.